

##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 다섯째날 / 부활과 선교

하용조 목사 / 마태복음 28 : 16 ~ 19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통의 편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편지는 이옥연 장로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이분은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지방에서 방송국 책임자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미니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온누리교회가 이 교회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께서 본인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낸 편지입니다.

“온누리교회와 하목사님을 통해 선교사의 꿈을 품게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떠나올 때 ‘가셔서 잘 쉬다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던 하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영과 육이 많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보내놓고 기도로 후원해주신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주일이면 어른와 아이들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 순 예배는 두 순으로 나누어 1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되어 주셨고,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자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어린이 사역에 비전이 있는, 온 가족이 도미니카를 뜨겁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5월 하순경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선교사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리에서 보내는 자리로 옮겨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이번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미니카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ACTS29’를 위해 써달라며 어제 3천불과 함께 돈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계산하며 망설이고, 이것주세요, 저것주세요 하고 구하기만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편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할 메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을 위해 보내 주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땅에 계셨던 40일 동안의 클라이맥스는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셨고, 우리는 멀리 계셨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와 사탄도 함께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삼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총체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할 일’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17절을 읽겠습니다.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명령, 비전, 선교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열 두 제자가 아니라 열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진 한 제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를 버린 사람입니다. 같은 비전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다른 길로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빌리그레엄에게는 템플턴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리그레엄과 은혜를 받고 비전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리그레엄은 죽는 순간까지 같은 길을 걸었지만 빌리그레엄 만큼 영적 능력을 갖고 있던 템플턴은 시험에 들어 유명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엄이 템플턴을 생각하며 평생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한 가지 사실을 16절에서 발견합니다.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두 100% 확신하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초초해 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앞에 계신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사랑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안 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비전을 다 본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다 의심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 **예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사명**

18절~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제 길로 갔습니다. 남은 열 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 권위를 부여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이러한 권세와 권위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비전과 사명을 주겠다.”

가라

첫째 사명은 ‘가라’입니다. 일단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늘 밤을 새고 아침에 잠깐 잠을 잤기 때문에 더욱 몸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밥 맛도 없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그 입에는 이미 시와 찬송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잠도 푹 자고, 푹 쉬었습니다.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잘 먹으니깐 걷게 되고, 온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 병든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라’하십니다.

###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구제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 인생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세례를 주라**

세 번째 사명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제자 삼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와서 세례를 축하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의 절정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감격과 축복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사명은 세례를 주고 끝내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명령,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이 명령, 이 사명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양육, 내적치유

등 제자를 삼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부탁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큰 비전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정리됩니다. 왜 내 문제가 커 보일까요? 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 눈치보고, 돈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곳에 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결혼,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가져도 되고, 갖지 못해도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돈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았고, 칼에 맞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본인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땅끝으로 가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자유로울 것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만사형통 할 것입니다.

비전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 비전을 나누십시오. 제자들은 이 비전을 갖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데살로니가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바울 전도여행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해 했을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사막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